

은퇴자를 위한 피사의 4탑

2018.12.19

CONTENTS

I. 서론

II. 노후자산 포트폴리오, '피사(PISA)'

[P] 연금자산(Pension asset)

[I] 보험자산(Insurance asset)

[S] 안전자산(Safe asset)

[A] 투자자산(Active asset)

III. 시사점

정나라 선임연구원

02-3774-6979 | nara.jung@miraeasset.com

< 요약 >

● 은퇴를 앞둔 5060세대는 그동안 노후를 위해 모아온 자산을 어떻게 배분하고 운용할지 고민에 빠져있음.

— 은퇴생활비는 목돈(예: 3억원)이 아닌 현금흐름(예: 월 100만원)으로 조달해야 하는 특성이 있음. 때문에 퇴직금 등 목돈을 보유하고 있는 은퇴자의 경우 이를 배분하고 운용하여 노후 30~40년의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솔루션이 필요함.

● 이 때 ‘피사(P·I·S·A)의 4탑’을 활용하여 자신의 보유자산을 점검해보고 배분하면 노후 지출의 속성에 맞는 체계적 노후준비가 가능함.

— ‘피사(P·I·S·A)의 4탑’은 노후에 필요한 네 가지 자산을 의미하는 말로, 각각 연금자산(Pension asset), 보험자산(Insurance asset), 안전자산(Safe asset), 투자자산(Active asset)을 의미함.

〈도표〉 ‘피사(P·I·S·A)의 4탑’의 속성 및 지출

자산	속성	지출
P 연금자산 Pension asset { 공적연금(국민·공무원연금 등) 종신연금 주택연금 자가연금(Self annuitization)	>> 현금흐름을 정기적으로 수령 >> 물가상승 방어 가능 >> 종신행 수급 가능	>> 필수지출
I 보험자산 Insurance asset { 실손보험 중대질병(암)보험 치매보험 간병보험	>> 의료비(진료비, 약제비, 입원비 등) 발생시 수시 수령 >> 보험사고(암 진단 등) 발생시 수령 >> 필요에 따른 위험보장 설계 가능	>> 비상지출
S 안전자산 Safe asset { 중위험 { 리츠(REITs) 수익형부동산 절대수익·인컴펀드 } 저위험 { 예적금 국공채 }	>> 중위험·중수익 자산은 주기적 현금흐름이 있거나 수익률이 안정적이므로 정기 인출 가능 >> 저위험 자산은 수익이 낮은 대신 긴급시 유동성 제공	>> 임의지출
A 투자자산 Active asset { 국내 주식 국외 주식 헤지펀드 고수익채권	>> 소득이나 자본차익을 위해 자본을 투입하여 가계의 재정적 부를 증식 >> 기대수익만큼 투자위험이 따르므로 위험관리에 유의할 필요	>> 자유지출

● 5060세대 뿐 아니라 3040세대 역시 노후를 준비할 때 피사의 4탑을 기준으로 삼으면 효율적으로 은퇴 재무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할 수 있음.

— 노후에 필요한 지출을 파악해 그에 적합한 자산을 준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포트폴리오에서 무엇이 부족한 지 깨닫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울 수 있음.

I. 서론

◎ 약 700만 명에 달하는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많은 이들이 은퇴자산을 어떻게 배분하고 운용할지 고민에 빠져 있음.

– 은퇴자산의 형태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부동산자산, 예적금 등으로 다양하며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짐. 은퇴자는 은퇴시점에 보유자산을 용도에 따라 점검하고, 노후에 소비하기 적합한 형태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퇴직금이나 예금처럼 목돈 형태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은퇴자의 경우 자산을 현금흐름 형태로 바꾸어 노후 3~40년의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솔루션이 필요함.

◎ 최적의 은퇴자산배분을 위해서는 먼저 노후에 어떤 지출이 일어날지 계획해보고 각 지출 속성에 따라 자산을 준비해야 함.

– 가장 기본적인 비용으로 ‘은퇴생활비’가 필요하며, 필수성의 정도에 따라 ‘최저생활비, 필요생활비, 여유생활비’의 3요소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개인의 환경이나 소비습관 에 따라 구체적인 생활비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나, 적정 수준의 생활을 가정해 ‘최저생활비+ 필요생활비’를 필수지출(필수적으로 소비하는 비용)로, 여유생활비를 임의지출(선택적으로 소비하는 비용)로 정의함.

– 은퇴생활비 외에도 질병에 대비한 의료비, 사고나 재해를 대비한 예비자금, 노부모와 자녀를 지원하는 등 자유롭게 지출하거나 투자할 수 있는 잉여자금이 필요함.

〈도표1〉 은퇴생활에 필요한 비용 및 자금

비용·자금	지출구분	정의	속성
노후 생활비 ※	필수지출	최소 수준 생활비	생필품에 필수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으로 종신형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물가상승에 대비해 실질소득을 유지해야 함
		적정 수준 생활비	매월 지출하는 생활비에 속하지만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한 비용으로, 가능하면 종신형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음
	임의지출	여유 수준 생활비	은퇴자가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소비하는 비용이므로 유연한 인출이 가능해야 함
예비자금		긴급상황에 대비한 3~6개월 생활자금	평소에는 지출하지 않지만 필요시 즉시 인출 가능해야 함
의료비	비상지출	노후 질병으로 인한 비용	의료비 발생 시점 및 금액을 예상하기 어려우나, 발생 시 지출이 큼
잉여자금	자유지출	자유롭게 지출하거나 투자할 수 있는 자금	수익이 기대되는 곳에 투자해 자산을 불릴 수 있음

※주: 노후생활비에 대한 분석은 미래에셋은퇴리포트 12호 ‘노후 생활비 300 만들기 전략’ 참조

◎ ‘피사(P·I·S·A) 포트폴리오’를 활용해 속성에 맞는 자산을 준비하면 노후 지출을 충당하고 안정적인 은퇴생활을 위한 기반을 갖출 수 있음.

– ‘피사(P·I·S·A) 포트폴리오’는 노후에 필요한 네 가지 자산을 의미하는 말로, 각각 연금자산(Pension asset), 보험자산(Insurance asset), 안전자산(Safe asset), 투자자산(Active asset)을 의미하며 네 자산의 첫 글자를 따면 ‘피사(P·I·S·A)’가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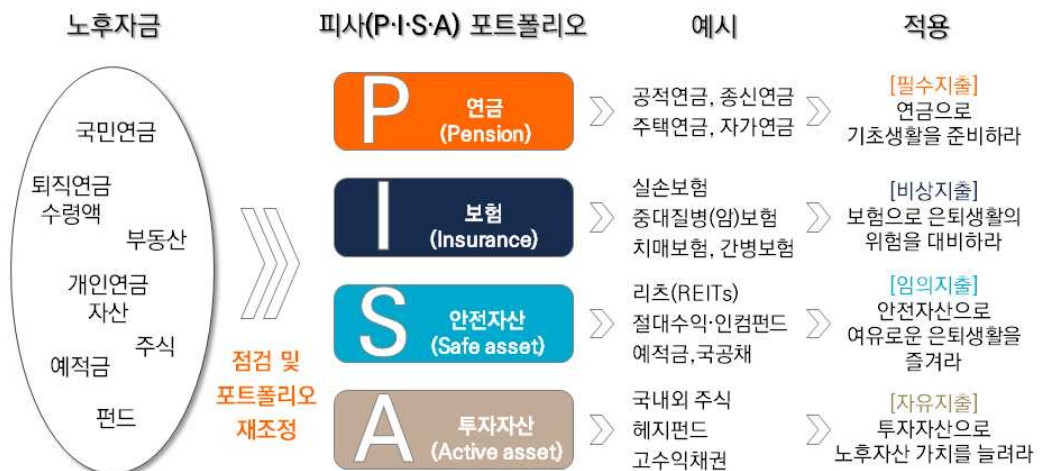
〈도표2〉 노후를 위해 준비해야 할 지출과 ‘피사(P·I·S·A) 포트폴리오’



– 은퇴자가 피사 포트폴리오를 활용해 자신의 노후자금을 점검해보면 노후 지출을 계획하기 쉬울 뿐 아니라 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완하고 재조정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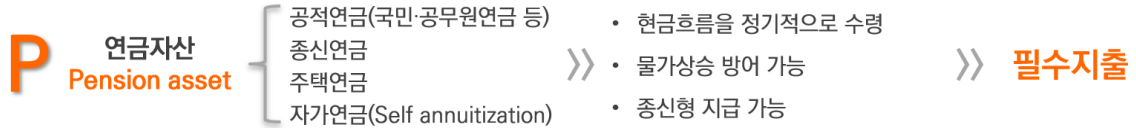
– 피사 포트폴리오는 종류에 따라 각각 기초생활 충당, 위험 대비, 여유로운 생활 향유, 자산가치 증식의 기능을 수행함.

〈도표3〉 ‘피사(P·I·S·A) 포트폴리오’의 예시 및 적용



II. 노후자산 포트폴리오, ‘피사(P·I·S·A)’

[P] 연금자산(Pension asset)



◎ 연금자산은 노후에 일정한 연금액을 정기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자산으로, 은퇴자의 기본 생활비인 필수지출을 충당하기에 적합함.

- 연금의 수령형태는 종신형(사망시점까지 수령)과 기간형(정해진 기간만큼 수령)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본고에서는 노후보장을 위해 종신형으로 지급되는 연금에 논의를 집중하기로 함.
- 필수지출은 생존을 위한 필수비용으로 은퇴 시점부터 사망 시점까지 끊기거나 부족하지 않도록 조달해야 하므로 종신형 지급이 가능한 연금으로 준비하는 것이 적절함.

◎ 연금자산은 ①노후 현금흐름 조달에 적합할 뿐 아니라 ②인플레이션 위험(Inflation Risk)과 ③장수 위험(Longevity Risk)을 방어하는 역할을 함.

① 현금흐름 조달

- 은퇴자는 국민연금·종신연금·주택연금·자가연금과 같은 다층적 연금을 활용해 노후에 일정한 현금흐름을 조달할 수 있음.

〈도표4〉 노후의 4가지 연금

구분	내용	속성	예시
국민연금	국가 또는 법률로 정한 특수법인이 운영하고 지급하는 강제 연금	물가연동 종신지급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종신연금	피보험자의 사망시점까지 정기적으로 일정한 연금을 지급하는 보험	종신지급	연금저축보험, 일시납 즉시연금
주택연금	거주주택에 살면서 주택을 담보로 받는 연금으로,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고 금융기관에서 취급		다양한 옵션 선택 가능 종신형 선택 → 종신지급 정액형 선택 → 명목금액 고정
자가연금	개인이 직접 자금을 운용하고 때에 맞춰 인출하여 연금과 같은 현금흐름을 만드는 것	자율운용	펀드, 예금 등 금융자산에서 직접 인출

※주: 자가연금은 금융시장에서 연금상품을 구입하는 대신 금융자산을 직접 연금화(化)하여 인출하는 것으로, 유동성이 높고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장수위험에 대비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음

② 인플레이션 위험 방어

- ※ 인플레이션 위험: 물가가 상승하여 은퇴자가 가진 재화의 실질 구매력이 하락할 위험
-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연금을 받는 동안 매년 물가가 상승하는 만큼 연금액이 오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위험을 방어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1998년 공적연금 50만원을 최초 지급한 은퇴자의 경우, 이후 연금액은 물가상승에 따라 ‘2003년 59만 2천원 → 2008년 68만 4천원 → 2013년 80만 5천원 → 2018년 85만 6천원’ 으로 증가하게 됨.(※자료: 국민연금공단)

③ 장수 위험 방어

- ※ 장수 위험: 은퇴자가 기대보다 더 오래 살아 노후자금이 사망 이전에 소진될 위험
- 퇴직연금·개인연금·주택연금 등을 종신형으로 수령하면 생의 마지막까지 일정한 금액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장수위험 감소 효과가 있음.
- 최근 일본·미국에서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장수연금(예: 60세에 비교적 소액을 예치하고 85세까지 거치한 후, 85세~사망까지 연금 수령)’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이러한 상품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은퇴자의 필수지출 중 최소생활비는 부부 2인 기준 174만원 수준으로 추정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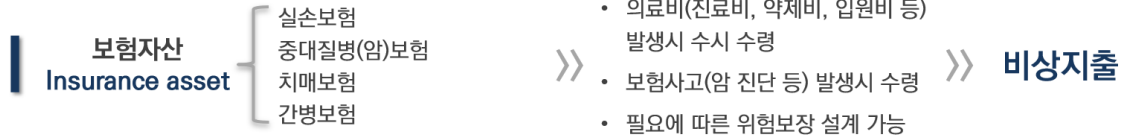
-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에 따르면 노후에 필요한 최소 생활비는 부부 기준 174만원, 개인기준 104만원으로 나타남.
- ※ 최소노후생활비: 특별한 질병 등이 없는 건강한 노년을 가정할 때 최저의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용
- 부부기준 연령별 최소 생활비를 보면 ‘50대(193만원) > 60대(167만원) > 70대(146만원) > 80대이상(138만원)’ 순으로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나이가 들수록 활동범위가 줄어들기 때문임.

〈도표5〉 노후 최소생활비

		(천원)	
		노후 최소생활비	
		부부기준	개인기준
연령대	50대	1,933	1,144
	60대	1,667	1,002
	70대	1,463	887
	80대 이상	1,375	816
계		1,741	1,040

※자료: 국민연금연구원(2017)

[I] 보험자산(Insurance asset)



◎ 보험자산은 질병이나 사고에 따른 보험금을 그때그때 지급해주므로, 노후 의료비나 간병비와 같은 비상지출에 대비할 때 유용함.

- 질병이나 사고와 같은 리스크를 관리하는 전략에는 ‘회피·축소·이전·보유’라는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질병으로 인한 위험은 피하거나 줄이기 어렵고 보유시 충격이 크기 때문에 ‘이전’ 전략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함.

※ 참고 : 리스크 관리 방안 4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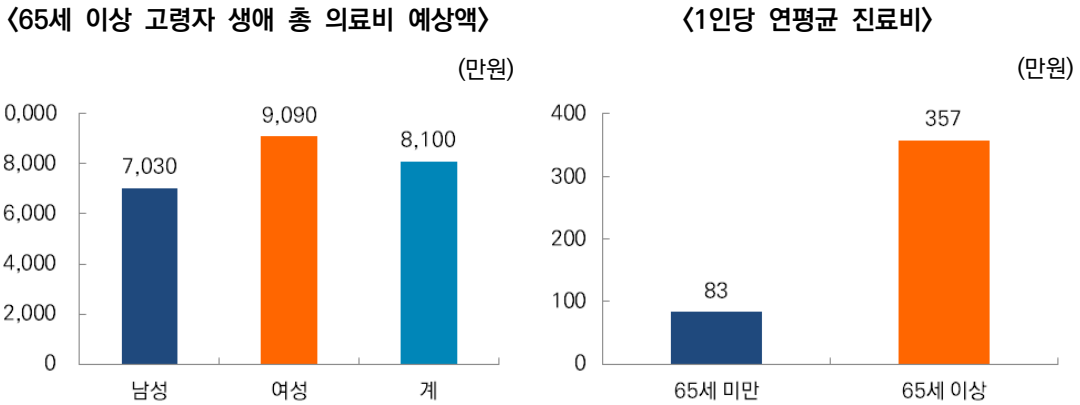
- ① 회피 : 해당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피함으로써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
(예) 운전시 교통사고가 두렵다면 아예 운전을 하지 않음
- ② 축소 : 리스크 발생시 피해를 완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
(예) 교통사고 피해를 줄여주는 안전벨트
- ③ 이전 : 리스크를 다른 사람 또는 집단에게 전가하는 것
(예) 교통사고 피해를 보험사에 이전하는 운전자보험
- ④ 보유 : 리스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예) 대처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운전을 계속함

— ‘리스크 관리 펀드멘탈’, 더글러스 W. 허버드 저, 미래에셋은퇴연구소 보완 —

◎ 65세 고령자가 여생동안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비는 총 8,100만원에 달하며, 고령화로 인한 치매와 간병비 등의 대비도 필요함.

-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2017)에 따르면 65세 이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비 총액은 남성 7,030만원, 여성 9,090만원 규모임.
- 보건사회연구원(2017)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연평균 진료비 지출은 1인당 357만원으로, 65세 이하(83만원)의 4.3배 수준임.
 - 고령자의 연평균 진료비 지출액은 50대 미만(90만원) → 60대(219만원) → 70대(367만원) → 80대(510만원)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함.
- 중앙치매센터(2017)에 따르면 65세 이상 전국 노인인구는 706만 6201명, 이 중 치매 환자는 70만 2436명으로 치매 유병률이 9.94%에 달하며,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급증해 치매환자 조호자(환자를 돌보는 배우자, 자녀 등)는 매일 6~9시간, 연간 2,074만원을 돌봄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도표6〉 65세 이상 고령자의 노후의료비 지출



※자료: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2017), 보건사회연구원(2017)

◎ 기존에는 보험가입이 어렵다고 여겨졌던 고령자와 만성질환자도 최근 비표준채 보험* 가입 통로가 열려있으므로 이를 활용해 보장을 받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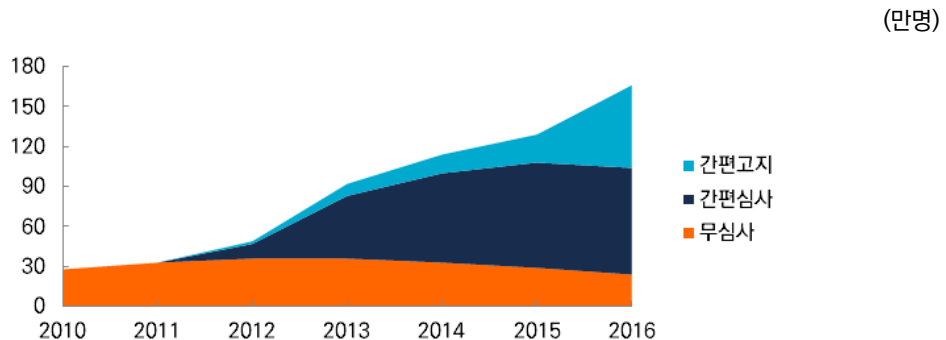
※ 비표준채보험: 나이와 건강이 표준 범위를 벗어난 사람, 즉 고령자나 유병자를 위한 보험으로 간편고지보험, 간편심사보험, 무심사보험이 있음.

- 간편고지보험은 유병자(병을 앓은 적 있는 사람)나 고령자라도 특정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가입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하고, 대신 가입비용을 일반에 비해 높게 받는 보험임. 질병 경험 후 보장의 필요성을 느끼는 유병자·고령자에게 인기를 얻고 있음.

※ 특정 사항: 3개월 내 입원·수술·추가검사, 2년 내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입원·수술, 5년 내 암 등 주요 질병(심근경색, 협심증, 뇌졸중 등)으로 진단·입원·수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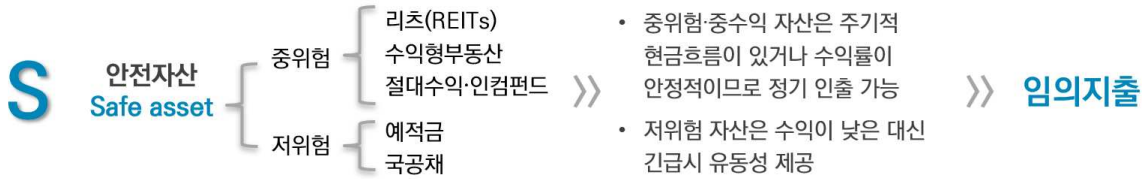
- 간편심사보험은 심사 대상 질병에서 고혈압과 당뇨를 제외해 가입 문턱을 낮추었으며, 무심사보험은 별도의 심사 없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으로 주로 사망보장 상품임.

〈도표7〉 생명보험 비표준채보험 가입자 수 추이



※자료: 보험개발원(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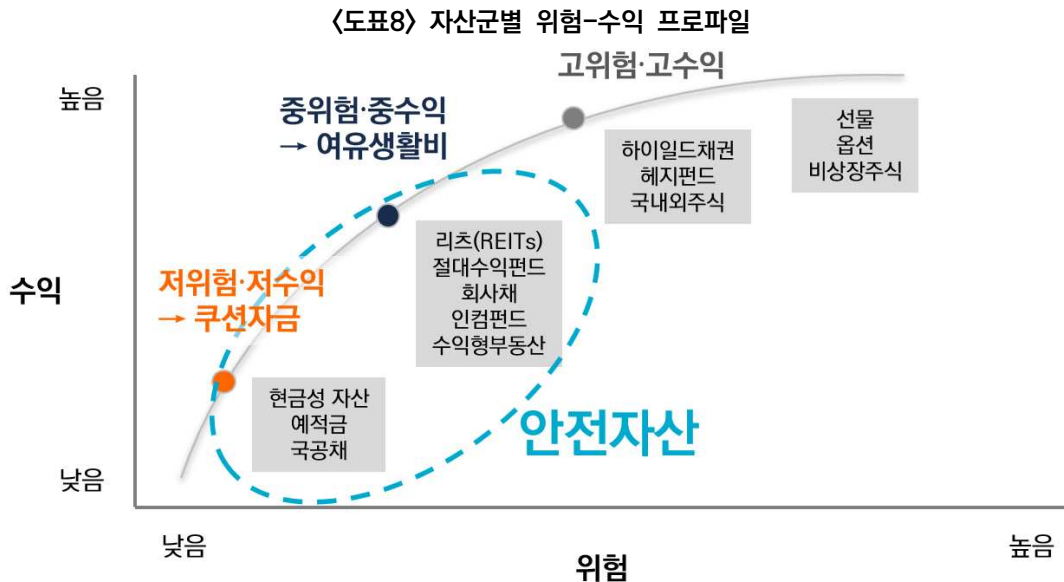
[S] 안전자산(Safe asset)



◎ 안전자산은 투자자산 가운데 중·저위험을 추구하는 자산으로, 여유생활비나 쿠션자금과 같은 임의지출을 충당하는데 활용할 수 있음.

※ 안전자산: 채무분야에서는 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 위험이 없거나 낮은 자산을 의미하며, 본고에서는 예적금이나 채권같은 저위험 상품과 '예금금리 + 2~3%p'의 수익을 추구하는 중위험·중수익 상품을 모두 포함해 저위험~중위험 상품을 포괄적으로 지칭함.

- 여유생활비: 여유로운 생활을 위한 추가 지출을 의미함. 이를 중위험·중수익 자산으로 운용해 충당하면 장기적으로 예금금리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 있으므로 자산증식을 통해 지출 총량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 쿠션자금(비상금): 사고나 재해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3~6개월치 생활비 비상자금을 의미하며, 언제라도 인출할 수 있도록 유동성이 높은 예금이나 채권 등 저위험 자산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음.



※자료: 'Capital Market Projection', Callan(2018)을 참조하여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재정의

◎ 리츠(REITs)나 인컴펀드와 같은 중위험·중수익 자산은 주기적으로 현금흐름이 발생하므로 여유생활비를 조달할 때 유용함.

－ 중위험·중수익 자산의 운용방식에는 ① 배당이나 이자와 같은 현금흐름이 주기적으로 발생해 가격하락을 방어하는 경우, ② 펀드의 운용전략이 중위험 수준으로 구조화된 경우, ③ 기초자산이 중위험 수준의 위험을 보유한 경우가 있음.

① 현금흐름 발생: 리츠나 인컴펀드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임대료, 배당, 이자 등의 수익이 발생하므로 중도에 수익을 인출하기에 적합함. 경기 불황기에도 수익이 꾸준하기 때문에 가격하락이 방어되는 효과가 있음.

② 운영전략: 파생상품 등을 활용해 손실을 제한하고 일정 이상의 수익을 내도록 구조화된 상품으로, 절대수익펀드 등이 있음.

③ 기초자산 특성: 기초자산의 특성상 예금보다 위험이 높지만 주식보다 위험이 낮은 자산으로, 수익형부동산이나 회사채 등이 있음.

〈도표9〉 중위험·중수익 자산 예시 및 구분

전략	자산	내용
① 현금흐름 발생	리츠(REITs)	부동산투자신탁의 약자로 부동산사업·임대·주택저당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
	인컴펀드	우선주, 전환증권, 고배당주, 고수익채권 등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로 가격상승에 따른 차익보다는 '이자, 배당'과 같은 인컴 수익을 목표로 하는 투자신탁
② 운용전략	절대수익펀드	주식시장의 방향과 관계없이 수익을 내도록 설계한 펀드로, 주가가 등락하더라도 '채권이자+α' 수준의 수익을 추구하며, 포지션을 중립화하여 손실을 방어
③ 기초자산 특성	회사채	기업이 시설투자 등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투자기간이나 신용등급, 이익참가형태 등에 따라 장단기사채, 일반사채, 전환사채 등으로 구분
	수익형부동산	주기적으로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동산인 사무실, 원룸, 오피스텔 등

※자료: 자본시장연구원(2013)

◎ 쿠션자금은 긴급상황의 지출에 대비한 3~6개월치 생활비로, 예적금 등 저위험 안전자산으로 마련해두는 것이 좋음.

－ 채무전문가들은 예상치 못한 사고나 자연재해, 경제위기 등에 대비해 3~6개월 정도의 생활비를 즉시 인출 가능한 자산으로 보유하는 것을 권장함. 이는 위기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고 정상 상태로 회복하기 위한 발판이 되어주므로 쿠션자금이라 칭함.

[A] 투자자산(Active asset)



◎ 투자자산은 은퇴자가 자산 증식을 위해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으로, 국내외 주식, 펀드, 고수익채권 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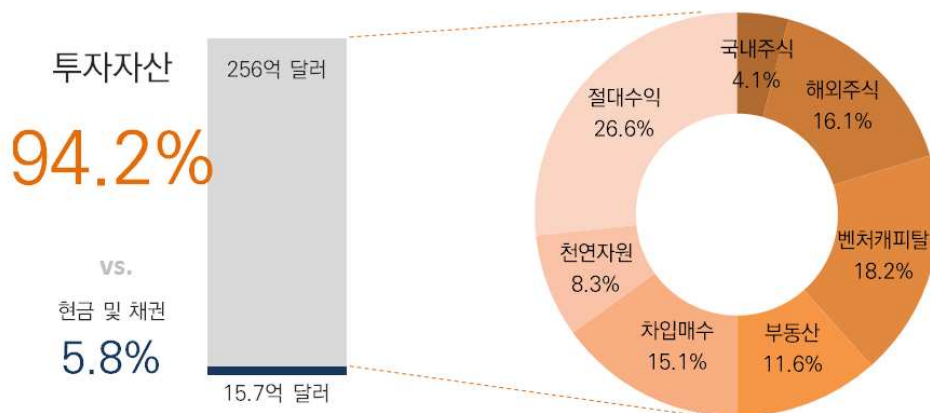
– 은퇴자가 투자에 소극적일 것이라는 통념과 달리 일본 사례를 보면 고령자의 주식 거래비중이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대별 주식 보유비율(※자료: 일본 증권업 협회(2018))
 - : 2~30대 79.2% < 40대 75.6% < 50대 81.7% < 60~64세 82.6% < 65~69세 82.7%
 - < 70세이상 86.1%

◎ 투자자산을 장기적 관점에서 국내외주식, 헤지펀드, 고수익채권, 비상장주식 등에 적극적으로 배분하면 단기적 변동을 극복하고 장기 자산 성장을 꾀할 수 있음.

- 수명이 길어지면서 은퇴자의 자산운용 기간 역시 25~30년 이상으로 길어졌으며 이 기간 동안 복리효과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투자로 자산을 성장시킬 필요가 있음.
- 지난 20년 동안 연평균 12.1% 이상의 수익을 거두면서 10배 가까운 성장을 이룩한 미 예일 대학 기금의 운용 방식을 살펴보면, 총 자산의 94.2%를 투자자산에 배분하고 있으며 국내외주식과 벤처캐피탈 등 공격적인 자산에 분산투자함.

〈도표10〉 미 예일대학 기금 자산배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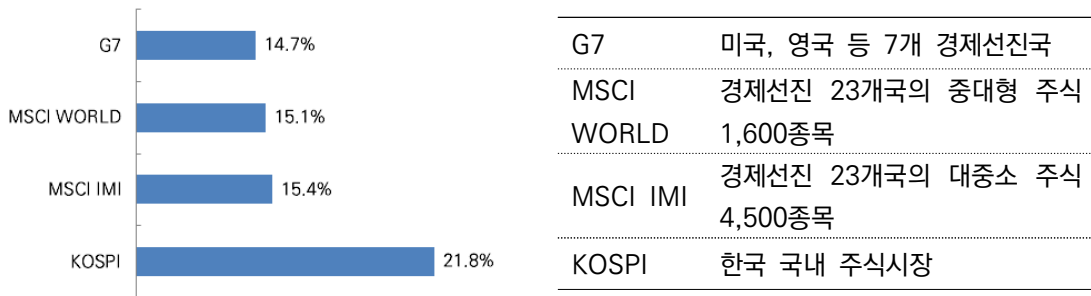
※자료: The Yale Endowment(2017)

◎ 은퇴자산 투자에서는 초기에 손실을 입으면 향후 회복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량 자산 투자, 자산군 분산, 글로벌 분산’을 통한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임.

① 우량자산 투자

우량자산일수록 리스크를 나타내는 값인 표준편차가 낮는데, 경제지수의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경제선진국(G7) 14.7% < MSCI World 15.1% < MSCI IMI 15.4% < 국내 (KOSPI) 21.8% 순으로 표준편차가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음.

〈도표11〉 국내외 지수별 리스크(연수익률 표준편차)



※자료: MSCI(2017), 2000~2018년 19년간 연수익률의 표준편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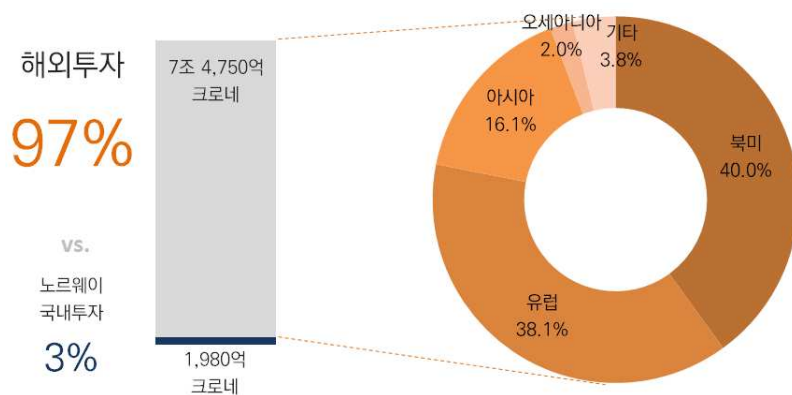
② 자산군 분산

자산군 분산은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취해야 하는 전략으로 자산 종류별, 업종별, 규모별 등 다양한 분산투자 방법이 있음.

③ 글로벌 분산

세계에서 손꼽히는 국부펀드인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미래 세대를 위한 구매력 보전”을 목표로 약 1,091조원에 이르는 자산의 94.2%를 해외 투자자산으로 운용함. 전 세계 72개국의 9,146개 회사에 투자하여 리스크를 줄이고 장기 성장을 추구함.

〈도표12〉 노르웨이 국부펀드 자산배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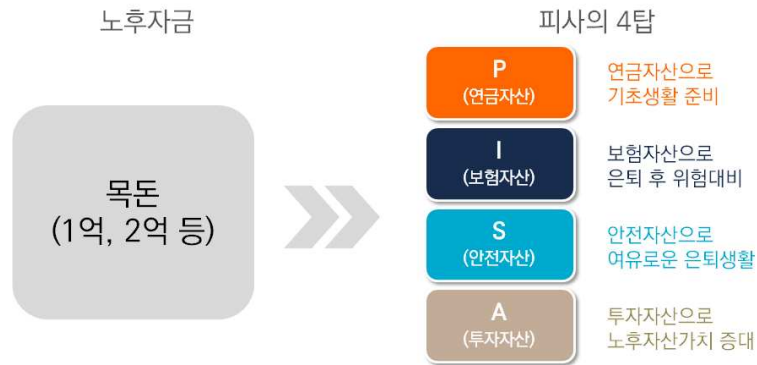
※자료: NBIM(2015), 국내투자분은 노르웨이 국내투자펀드(GPFN)의 규모임.

Ⅲ. 시사점

◎ 노후준비라고 하면 1억, 2억처럼 자산의 크기를 생각하기 쉬우나, 정교한 노후설계를 위해서는 지출과 자산의 속성을 고려해 ‘피사의 4탑’을 쌓아야 함.

- 노후에는 단순 생활비 뿐 아니라 의료비나 여유지출 등 다양한 지출에 대비해야 하므로 개인의 지출 계획에 따라 맞춤형 자산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 이 때 연금자산, 보험자산, 안전자산, 투자자산의 4가지 자산으로 ‘피사의 4탑’을 쌓으면 노후 지출을 항목에 따라 구체적으로 계획할 수 있으며, 각각 얼마의 자산이 필요한지 알 수 있음.

〈도표13〉 노후자금과 피사의 4탑



※주: ‘피사(P·I·S·A)의 4탑’은 노후에 필요한 네 가지 자산(연금자산(Pension asset), 보험자산(Insurance asset), 안전자산(Safe asset), 투자자산(Active asset))을 이탈리아 피사의 사탑에 빗대 표현한 말임

◎ 연금자산을 준비할 때 공적연금·종신연금 자산이 부족하다면 자가연금화 전략을 활용해 금융자산을 계획적으로 인출할 필요가 있음.

- 금융자산의 자가연금화 전략에는 정액형, 정률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인출 목적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활용해야 함. (미래에셋은퇴리포트 35호 ‘투자자산을 연금화(化)하는 5가지 방법’ 참조)

◎ 은퇴에 가까운 5060세대 뿐 아니라 3040세대 역시 피사의 4탑을 참고하여 장기 관점에서 노후를 설계하고 준비해야 함.

- 연금이나 보험과 같이 적립식으로 준비하는 자산의 경우, 젊을 때부터 납입하면 복리 효과가 커지므로 더 적은 금액으로 효율적인 노후준비가 가능함.

<끝>

평안한 노후를 위한 자산관리 5원칙

저성장·저금리·고령화로 과거와는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변화된 환경 속에서 은퇴자산을 성공적으로 운용하고 평안한 노후를 준비하려면
지금까지 익숙했던 것과 다른 은퇴자산 관리 원칙이 필요합니다.

01 은퇴자산은 글로벌로 분산투자해야 합니다.

저성장·고령화로 인해 국내자산에만 투자할 경우 기대수익률이 낮아질수 있습니다.
은퇴자산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글로벌 분산투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02 은퇴자산은 안정성에 초점을 두고 다양한 자산에 투자해야합니다 .

집중투지에 따른 손실은 장기 투자로도 회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은퇴자산을 '자산군 간, 자산군 내, 지역별'
이렇게 3중으로 철저하게 분산해야 합니다.

03 은퇴자산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량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은퇴자산은 장기간 운용해야 하므로 사회, 경제적 트렌드의 변화에 맞는 우량자산을
선별하여 투자해야 합니다.

04 은퇴자산은 질병·사고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로부터 보호되어야 합니다.

질병 및 사고는 은퇴자산의 형성을 막고 소진을 앞당기는 원인으로 작용하므로,
보장성 보험 등을 통해 철저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05 은퇴자산은 적립에서 인출까지 통합적 관점에서 운용되어야 합니다.

길어진 수명과 낮아진 금리는 은퇴자산 관리에 있어서 새로운 생각을 요구합니다.
자산규모보다는 현금흐름을 중시하는 관점을 가져야 하며, 자신에게 맞는 인출계획을
세우고 적립시기부터 그에 맞게 은퇴자산을 운용해야 합니다.

오늘날 공적 사회보장 제도만으로는 노후자금을 충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여기에 저금리·저성장·고령화라는 '2低1高 시대'를 맞아 은퇴자산을 축적하고 운용하는 데 개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고객의 평안한 노후에 기여한다는 미래에셋그룹의 비전 하에 은퇴콘텐츠 개발 및 연구, 전문적인 은퇴교육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은퇴리포트를 통해 은퇴설계시 고려해야 할 다양한 이슈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미래에셋은퇴리포트 지난호

... 이전 생략 ...

- [21] 나이차에 따라 달라지는 부부의 은퇴설계, 2015.9
- [22] 은퇴 후 '110,000' 시간, 2015.10
- [23] 중소기업 퇴직연금 운영현황 및 향후과제, 2015.12
- [24] '4대 관계망'을 통해 본 은퇴 후 인간관계의 특징, 2016.1
- [25] SF영화 '마션(Martian)'에서 찾은 100세 은퇴자의 생존법, 2016.3
- [26] 노후자산관리, 장수의 이점을 살려라, 2016.5
- [27] 연금부채를 연계한 DB형 퇴직연금 자산배분전략, 2016.7
- [28] 노르웨이 국부펀드에서 얻는 개인연금 자산관리 아이디어, 2016.8
- [29] 100세 시대 은퇴재무설계, 이제는 소득배분이 필요하다, 2016.9
- [30] 노벨경제학자 3인에게 배우는 은퇴재무설계, 2016.11
- [31] '은퇴자금 승수'로 알아보는 나의 은퇴자금 계산법, 2017.1
- [32] 5060 은퇴리스크 매트릭스, 2017.3
- [33] 노후자금 인출의 숨겨진 위험 시퀀스리스크, 2017.5
- [34] 덩케르크 철수작전에서 배우는 노후자금 인출전략, 2017.10
- [35] 투자자산을 연금화(化)하는 5가지 방법, 2018.2
- [36] 연금자산의 TDF 투자현황과 개선방안, 2018.4
- [37] 국제비교를 통해 본 우리나라 가계 자산 특징 및 시사점, 2018.10
- [38] Next 20년, 내 자산을 어디에 둘까, 2018.12

은퇴리포트는 미래에셋은퇴연구소 홈페이지(retirement.miraeasset.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은퇴리포트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으로 미래에셋은퇴연구소의 공식견해가 아닙니다.
본 내용을 인용하거나 전재할 경우 사전에 미래에셋은퇴연구소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